

광주기독병원, AI 기반 웨어러블 ‘스마트케어 병동’ 본격 운영

심전도 · 산소포화도 · 호흡수 등 주요 생체정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전자종이(E-paper) 기반 스마트 ID카드 도입... 병상 정보 자동 관리
향후 전 병원 AI 시스템 연계 등 단계적으로 스마트병원 인프라 확대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승욱)이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케어 병동’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2025년 7월부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스마트케어 병동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원내 9개 입원병동에 웨어러블 바이오센서, AI 기반 생체정보 분석 시스템, 병동 중앙감시 시스템(Central Monitoring System), 의료진 모바일 기기, 병원정보시스템(HIS) 연계 스마트 ID카드 등을 도입했다.

병원은 스마트케어 병동 구축을 기념해 오픈 감사예식을 갖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안전 중심의 병동 운영 방향과 향후 스마트병원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

■ 스마트 ID카드로 환자·병상정보 자동 관리

병상 관리에는 전자종이(E-paper) 기반의 ‘스마트 ID카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스마트 ID카드는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동돼 환자의 입·퇴원이나 병상 이동에 따라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종이 이력표를 수기로 교체하던 방식과 비교해 정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누락을 줄이고, 의료진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병상별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환자 확인과 병상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 환자 안전과 의료진 업무 효율성 함께 높여

이번 스마트케어 병동의 특징은 개별 시스템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모니터링과 병상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스마트 의료환경으로 연계했다는 점이다.

웨어러블 바이오센서를 통해 수집된 생체정보를 AI가 분석하고 중앙감시 시스템과 의료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환자 상태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ID카드 역시 HIS와 연계해 병상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하도록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병원은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진의 반복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업무를 줄여 환자 진료와 간호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은 스마트케어 병동 운영을 시작으로 디지털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원내 다양한 의료정보 및 의료장비와 연계하고, AI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환자의 상태와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병상 관리 시스템과 병원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욱 병원장은 “이번 스마트케어 병동 구축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AI와 ICT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환자가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스마트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내 다양한 의료정보 및 의료장비와 연계하고, AI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환자의 상태와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병상 관리 시스템과 병원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욱 병원장은 “이번 스마트케어 병동 구축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AI와 ICT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환자가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스마트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기독병원이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케어 병동’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8월 28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과 사택, 작업장이 전소된 영광송신교회 모습.



영광송신교회 화재로 예배당 · 사택 및 작업장 전소 광주노회 사회봉사부 “자립기반 붕괴, 신속한 구호대책” 호소

영광송신교회(담임목사 김종민)에 지난 8월 28일 오전 7시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목회자 사택과 예배당 및 작업장 등 시설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노회 사회봉사부(부장 김호경 목사)는 최근 재난 상황을 접한 후 곧바로 영광 송신교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피해 복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남 영광군 군서면 서원길 35-29에 위치한 송신교회는 이번 재난으로 인해 목회자 가정의 주거 공간인 사택이 완파되고, 교회의 자립 기반을 위해 운영되던 작업장과 내부 예언 등 핵심 부속 시설들이 완전히 소실되는 큰 아픔을 겪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는 교회 추정치 1억 2,000만 원, 노회 산정 기준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송신교회는 평균 출석 성도 15명의 농촌

면 지역 지파대성교회이며 연 예산이 1,500만 원에 불과해, 목회자 가정의 거주지 상실과 자립 기반 붕괴라는 이중고 속에서 자체적인 재정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현장 조사 결과, 피해 시설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하여 전면 철거 후 재건축 검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노회 사회봉사부와 관계자들은 농촌 지역 영세 교회가 직면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총회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더불어 노회와 지역 교회들의 실질적인 구호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회 후원 계좌번호 : 농협 3561137813923
송신교회 김종민목사 01029224376
교회 주소 : 전남광주영광군서면 영광군 군서면 서원길1길 35-29
광주노회 사무실 전화번호 062-511-4800

“사회선교 한걸음 더하기” 2026 컨퍼런스

9월 12일(토) 오후 3시 수원성교회에서

성서한국이 뜻을 함께 하는 교회와 함께 ‘사회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성서한국은 오는 9월 12일(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수원성교회(서울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4번출구)에서 ‘사회선교 한걸음 더하기 2026 컨퍼런스’를 갖는다.

1부는 사회선교 박람회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2부 포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실시한다. 사회선교 박람회는 봉사관 1층 무물가에서, 포럼은 봉사관 3층 310호(세미나실)에서 각각 열린다.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성서한국은 “한국교회의 선교는 해외선교를 비롯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 성장해왔지만 사회선교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낯설어하는 상황”이라며 “고도화된 사회에서 교회의 사회선교는

감수할 많은 필요를 요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성서한국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회선교운동을 위해 2005년 출범한 기독교연합기구이다. 현재 27개 단체와 16개의 교회가 회원으로 있다.

■ 포럼 사회: 고상환 성서한국 이사장.

■ 기조발제: 박득훈 목사 (기독교연구원 노혜미 이사장, 성서한국 사회선교사)

-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6:1-8) : 사회선교를 향한 주님의 열망

■ 발제1: 남기일 집사 (수원성교회 사회환경선교부 부장)

- 수원성교회 사회선교사 제도의 시작과 전개 과정, 그리고 미래

■ 발제2: 박형제 집사 (광교산



물교회 사회선교부장)

- 지발성의 힘, 지속성의 숙제 : 광교산교회 사회선교 동아리들의 시도와 고민

■ 발제3: 이수연 목사 (새말교회)

- 경계를 넘는 교회

문의 : 02-734-0208, biblecorea@gmail.com (송지훈 성서한국 사무총장)

(‘참가비는 없음.’)

‘귀환과 정착, 그리고 공동체’ 광주 고려인마을 학술회의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오는 17일 오후 4시 고려인마을서
마을 형성과 미디어 · 의료 · 신앙 공동체 정체성 집중 조명

제1회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국내학술회의

귀환과 정착, 그리고 공동체
광주 고려인마을의
형성과 실천

일시 2026년 9월 17일(목) 16:00~18:00
장소 고려인마을 커뮤니티센터

주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울대학교 고려인연구·광주대 고려인연구·광주기독병원·광주노회
주관 고려인마을 신화·고려인문화연구원

원장사 이창영(서울대학교 교무·고려인문화연구원)
총무 박은석(광주대 총무)

1부 사회 김병하(한국고려학연구소장)

발표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고려인 귀환 고가영(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고려인문화연구원 교수)

발표 2 경제를 읽는 소리와 광주·고려인마을 GBS와 방송 93.5MHz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최아영(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논제 송병호 박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2부 사회 김호국(광주대 교수)

발표 3 신학적 사색과 본 고려인 광주진료소의 정체성 박용호(광주대 교수 겸 고려인문화연구원)

논제 김연수(광주대 교수), 정준기(광주대 교수)·고려인문화연구원·광주노회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의 형성과 정착 과정, 공동체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국내학술회의가 오는 17일 고려인마을에서 열린다.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의 형성과 정착 과정, 공동체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국내학술회의가 열린다.

2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마을 산하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소장 고가영)는 오는 17일 오후 4시 고려인마을에서 ‘귀환과 정착, 그리고 공동체-광주 고려인마을의 형성과 실천’을 주제로 제1회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귀환 고려인동포들이 광주에 정착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육·의료·문화·언론·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기반을 구축해 온 과정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박은석 광신대학교 총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1부에서는 김병하 고려인문화연구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고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고려인의 귀환’을 발표하고, 최아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경제를 읽는 소리: 광주 고려인마을’을 발표한다.

GBS고려방송(FM 93.5MHz)의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주제로 고려인 공동체와 미디어의 역할을 살펴본다. 슬랩첸코 바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논평한다.

2부에서는 김호국 광신대 교수의 사회로 박용호 광신대 경전신학연구소 연구자가 ‘신학적 사색과 본 고려인 광주진료소의 정체성’을 발표한 다. 김연수 광신대 교수와 정준기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논평에 참여한다.

연구소는 지난 3월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광주 고려인마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고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를 제3대 소장으로 임명하고 연구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 소장은 광주 고려인마을의 형성과 성장 과정, 고려인 귀환과 지역사회의 확대 등을 연구하며 광주 고려인마을이 다른 고려인 집거지역과 차별화된 공동체 모델로 성장해 온 과정을 학문적으로 분석해 왔다.

한편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문화, 항일독립운동과 강제징주, 귀환과 정착, 공동체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광주 고려인마을이 2018년 설립한 고려인 전문 연구기관이다.

공익모임 ‘무등한결’ 고려인마을서 첫걸음

고려인 동포 삶과 디아스포라 역사 현장 탐방
진료소 · 문화관 · 특화거리 둘러보며 방향 모색

광주지역에서 전문성과 자원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새롭게 결성을 추진 중인 공익모임 ‘무등(無等)한결’ 회원들이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아 독립유공자 후손 고려인동포들의 삶과 문화를 살펴보았다.

1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무등한결 회원들은 지난 31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방문해 고려인광주진료소와 고려인문화관, 문북트림미술관, 고려인마을 특화거리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먼저 고려인광주진료소에서

또 고려인마을 특화거리를 걸으며 중앙아시아 식당과 상점,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둘러보고 전통음식을 직접 맛보는 등 중앙아시아 음식문화도 체험했다. 이를 통해 조상의 나라로 돌아와 광주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고려인동포들의 현재 삶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살펴보았다.

‘무등한결’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의 ‘무등(無等)’과 한바탕으로 함께한다는 의미의 ‘한결’을 담아 회원들의 전문성과 자원을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연결하기 위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신생 모임이다.

앞으로 고려인광주진료소 의료진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공익사업 발굴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